

중국 충칭서 무주 매력 알려

무주군, '농촌협약' 공모 선정

국비 300억원 확보...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추진

군, 중국서부국제관광박람회서 관광지·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필요성 등 홍보

무주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개최된 제7회 중국서부국제관광박람회에서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성지'의 매력을 알렸다.



무주군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충칭에서 개최된 제7회 중국서부국제관광박람회에서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성지'의 매력을 알렸다.

군은 올해로 25회 짝을 맞는 무주반딧불축제(2018·2019 2년 연속 정부 지정 문화관광 대표축제)를 거쳐 2020년도에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와 덕유산(한국관광공사 선정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 어사길 등), 적상산(적상산성, 적상산사고지 등), 반디랜드(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등), 머무와인동굴, 태권도원 등으로 대표되는 무주군 관광지를 홍보영상으로 제작·상영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환경지표 곤충이자 천연기념물 제322호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의 일생을 통해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또 무주군이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원대학교 개념으로 설립 추진 여론을 모으고 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필요성 등을 홍보 책자를 통해 알렸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이현우 팀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

로나19 예방접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해외여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중국 서부지역에 무주를 알리고 중국인들을 무주로 불러들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중국 서부의 중심인 충칭시인민정부(충칭문화관광개발위원회)가 주최한 것으로 중국내 30

개성을 비롯해 1천여 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중국 이외 국가로는 한국(전라북도)과 일본, 이탈리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헝가리, 에티오피아 등이 함께 했다.

무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함께 전라북도 관광홍보관(이하 전북홍보관)에서 무주의 사계 등 이모저모를 알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국비 300억 원을 확보, 살맛나는 무주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촌협약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 지자체가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공동투자를 함으로써 농촌정주권 기반을 창출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군은 지자체간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번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오는 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300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협약' 선정에 앞서 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시작으로 농촌협약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간지원조직 가동 등 역량을 집중해 왔다.

또 농촌협약지원센터 설립과 실무회의, 민관 거버넌스 포럼, 전문가 등을 진행하면서 농촌협약 공모 준비에 열정을 쏟았다.

지난달 17일에는 군청 3층 회의실에서 농촌협약 공모사업 막바지 준비를 위한 농촌협약위원회(위원장 황인홍 무주군수)를 열고 공모 선정에 관련된 체계적인 활동을 다짐하기도 했다.

군이 농식품부에 제시한 비전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 군정지표 실현을 위한 365생활 거점 도

시 무주! REBORN!'이다.

내년부터는 30분내 보건 교육 기초 생활서비스가 해결되고 60분내 문화 교육 의료 등 복합서비스 접근, 5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무주군은 향후 5년간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 유희시설 창업 지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군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 인구 과소화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에 활기를 띄우고 정주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공모에 선정된 농촌협약이 생명에 활력을 불어넣는 가슴에 단비처럼 우리 무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살맛나는 무주! 살고 싶은 무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선정에 해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동안 애써준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정부로부터 농촌협약 선정으로 놀라운 지역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5년 동안 군민과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전국적 선도 모델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로 주민 만족도 ↑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서 밝히

이해연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최근 시행한 무주읍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 재포장 공사로 주민편의가 크게 좋아졌다고 평가하고 적극행정으로 모범사례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6일 열린 제284회 무주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이해연 위원장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하며 무주읍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집행부에 전했다. 이해연 위원장이 언급한 곳은 무주군청 앞 소로, 풀마트-용천약국 U대회 기념교 구간이다. 이곳은 최근까지 돌포장으로 되어있고 틈새를 파쇄석으로 채우며 보수·유지해왔다. 그러나

깊이 높은 신발은 신은 주민의 보행에 지장을 주고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니기 힘들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민원을 접수한 이해연 위원장은 부서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주민이동편의를 강조하며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무주군은 올해 2억342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이 도로를 아스팔트로 재포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연 위원장은 "돌포장을 아스팔트로 되돌리는 일에 예산낭비 시비가 붙을 수 있었지만 무주군이 적극행정을 펼쳐 주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도로가 됐다"며 "무주군의 여러 사업 가운데 일부분이고 규모도 작지만 해당 도로는 무주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고 사고위험도 높은 곳이었다.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점을 보자면 이 사업이 어떤 국책사업보다도 효과가 좋다. 이렇게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을 계속 펼쳐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장은 "도시계획

도로 재포장 초기에는 우려가 있었으나 공사 후 물 빠짐이 좋고 통행환경이 좋아졌음을 확인했다. 칭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마을하수도 정비 완료

진안군은 17일 청정환경을 지키고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상전면 주평리, 정천면 모정리, 용담면 와룡리, 옥거리, 수천리 일부 마을에 하수처리장 증설 및 배수설비 연결 등 정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하수처리장 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장 증설설 3개소(상전 30톤/일, 용정 30톤/일, 옥거리 30톤/일), 하수관로 24.72km 설치 추가, 14개 마을 331가구에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등 총사업비 175억 원을 투입해 추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독립지사 백용성 조사 탄신 157회 기념행사 거행

백용성 조사 탄신 157회 기념행사가 17일 장수 죽림정사에서 사)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 주관, 정토회 주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기념사업회 최석호 이사장(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과 죽림정사 주지 유수 스님, 김용문 장수군 의회의장, 박용근 도의원, 최재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성병 번안면장, 기념사업회 이사진, 정토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중계로 진행됐으며 용성조사의 행장낭독, 죽림정사 주지 유수스님의 기념사, 내빈축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법륜스님의 기념법문, 겨례의 노래 합창순으로 진행됐다.

용성 진중조사는 기미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을 주도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로,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지성화를 주창하며 한국 근세불교에 두드러진 업적을 남겼다.

1928년 사상 처음으로 화엄경을 한글로 번역해 출간했으며 서울 종로도심에 대각사를 창건 오르간을 들여놓고 찬불가를 직접 만들어 어린이 법회를



여는 등 불교 대중화에 노력했다. 용성 스님의 법맥을 잇는 '용성 문중'은 한국 불교계의 큰 산맥으로 자리하고 있다. 성철스님 등 역대 조계종의 중흥 60%가 용성 문도이다.

지광 법륜스님은 기념법문을 통해 "스님은 청정한 수행으로 승려의 직분에 충실했고, 독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타협 없이 실천했다"며 "고귀한 스님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시대적 과제인 사회통합과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용성 조사의 유적지인 죽림정사는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시설이며 조선글 화엄경 등 문화재정이 지정된 등록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한편 현재 장수군 백용성조사 기념사업회는 용성스님의 호국,호법정신을 계승할 용성전승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의회,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6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7일과 8일 양일간에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진안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의결했다.

김광수 의장은 "진안군의회 의원 모두 군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본연의 책무를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자원봉사센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센터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펼치고 있다.

17일 장수군과 장수군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출범했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매일 2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코로나19백신접종센터에 투입돼 접종대기자 거리두기, 동선 안내, 휠체어 이동 보조, 방역수칙 안내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접종 대기자들이 보다 빠르고 신속한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력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장수군 군수는 "백신 접종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주신 장수군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수군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